

2018 년 1 월 28 일 “경외심의방해물” - 마 6:1-6, 16-18 (요약)

하나님은 사람을 당신의 사랑에 끌리도록 지으셨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통할 때 갖는 감정은 친밀함, 따뜻함, 격려, 긍정의 힘 등입니다. 이로 인해 주님을 더욱 알고, 따르고,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열려야 할 주님과 교제를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1]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수님은 유대인의 중요한 종교 행위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실행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6:1, 5, 16 절 - “사람에게 보이려고”, 2 절 사람에게 영광 구하려고 할 때입니다. 이것이 항상 나쁜 것인지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사람은 함께 해야 하고, 더 깊이 사랑하고 사랑 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동료 사람끼리 서로가 필요합니다. 그 때 사람에게 보이고 싶은 마음, 사람에게 인정과 칭찬받고 싶은 것은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비판 당하고 소외 당하면 상처입고 괴로워집니다. 사람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연합과 격려 안에서 기쁘고 힘 나도록 지어졌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사람의 인정과 칭찬과 연합을 무시하고, 사람을 신경 쓰지 말고, 주님과 관계만 중요하다는 뜻이 아닐 것입니다.

이미 5 장에서 사람 사이에 어떤 관계와 태도가 필요한지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드리기 전에 형제와 화목하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을 갈 때 사화(친절히 타협)하라,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가지게 하고, 등... 사무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배려와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온전함의 기준까지도 알 수 있게 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5:48)

이 말씀 직후에 본문 “사람에게 보이려고 ~ 하지 마라”(6:1)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사람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는 온전한 인성에 방해가 된다는 뜻이 됩니다. 6:1 말씀은 자신의 자랑, 우월함을 드러내지 말고 사람 앞에서 자신의 수준을 증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이유는 은밀한 아버지와 교제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4, 6, 18 절 - “은밀한”) 예수님은 아버지와 은밀한 교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며 천국백성은 이 땅에서 상을 받는 것보다 이것을 더 귀히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2]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1) 사모하는 상대와 둘만 함께 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의 바람입니다. 좋아하는 친구와 깊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여러 사람이 있으면 중요한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둘이 만날 때 의미 있는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음성을 마음으로 들을 때, 내면의 문제가 발견되고 치유 받을 때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가 아니라 홀로 기도/묵상하거나, 영적 독서, 자기 성찰을 할 때였을 것입니다. 아버지와 은밀한 교제를 원하는 것은 그분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2) 이 때 만나는 아버지는 기대와 좋은 의미에서 떨림이 있는 분입니다. 경외심은 바로 이것에서 비롯됩니다. 이 경외심은 매우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값어치 주시는 내용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시지 않습니다. 때마다 아버지께서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아버지를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 중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75 세에 부르심을 받고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가 하나님 믿었던 이유는 아들 주신다는 약속 때문입니다. 그리고 긴 굴곡의 여정 끝에 25 년이 지나서야 이삭을 받았습니다. 아들 주신다고 해서 갖게 된 아브라함 믿음은 사람들이 이해한 공공연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장성했을 때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가 실제로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멈추고 이렇게 말합니다.

창 22:12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제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사건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전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남들이 알아줄 만한 믿음이었지만, 이제는 이해가 어려운 믿음의 단계로 간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이었고, 사람에게는 보이려고 행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에서만 인정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이제 우리는 구제나 기도나 금식과 같이 신앙의 어떤 행위가 은밀한 주님과 관계 속에서 인정하시는 때가 있음을 기대하며 아버지와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정진해야 합니다. 이것은 내면 지향적 삶이 아니면 결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늘 은밀한 것을 가리키십니다. 은밀한 주님과 교제가 깊어지는 축복이 임한다면 우리 삶은 멋지게 단순해지고, 소모적인 씨름들이 줄어들 것입니다.

<맺음>

경외심을 방해하는 표면적 만족과 인정, 있고 없고의 비교는 무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사랑하고 사랑받기에 중요한 존재이지 나를 높일 수도 낮출 수도 없는 존재라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두에게 은밀한 중에 갇아 주시는 상이 풍성하시길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들>

1. 아버지와의 내적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크게 와 닿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언제 아버지와의 내적 관계를 찾고 구하게 되는지 생각해 보고 자유롭게 나누어 봅시다.
2. 나는 어떤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애쓰고 있습니까(의식적, 무의식적으로)? 그것이 나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요? 이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의도를 생각할 때 사람으로부터 가장 먼저 자유롭게 되고 싶은 부분이 무엇입니까?
3.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은밀한 관계 속에서 드러지고 인정받는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은 삶의 변화란 무엇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본인의 경험이 있으면 나누어 보십시오.